10호








백향목의 향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 하갈로 67
(하갈동 156-67, 기흥장례식장 옆)
TEL : (031) 286. 2755
WWW.CEDARCHURCH.KR

목 차

2 담임목사 칼럼

4 절기소개: 부활절

6 선교지에서 온 편지

8 새가족 간증문

11 백향목교회의 아기천사들

12 선교활동

16 새가족 소개

18 성도들의 솜씨자랑

19 교회소식



박상완 담임목사

사명자의 길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충성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명자의 길이 무엇인지, 한 편의 소설과 한 편의 영화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아일랜드 출신 영국작가 오스카 와일드(1854~1900) 의 “행복한 왕자” 라는 소설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 된 도시의 훌륭한 걸작품인 왕자 동상이 제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몸에서 떼어 낸 금붙이와 보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왕자 동상을 돕느라 동료들을 따라 따뜻한 남쪽으로 가지 못한 제비는 얼어 죽고 말지요.

왕자 동상에서 뗀 루비, 사파이어, 황금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은 위기를 모면하고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아름다웠던 황금 동상은 흉측한 무쇠 덩어리로 변하게 돼요. 한겨울 추위로 제비는 죽고, 왕자의 납 심장도 두 동강 나고 말아요.

“왕자는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 동상은 폐기 돼 용광로로 들어갑니다. 불에 녹지 않은 왕자의 납 심장과 죽은 제비는 쓰레기 더미에 버려집니다. 비극으로 끝날 뻔한 이 이야기는 결말의 반전을 통해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귀중한 것 두 가지를 가져오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가 쪼개진 납 심장과 죽은 제비를 들고 오자 하나님이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제대로 가져왔구나. 이 작은 새는 천국의 정원에서 영원히 노래할 것이며, 행복한 왕자는 황금으로 만든 도시에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인간들의 눈에는 볼품없는 쓰레기로 보였던 왕자와 제비가 하나님의 눈에는 숭고한 보석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희생'이라는 영화의 일부를 제가 존경하는 권혁봉 교수님의 칼럼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영화는 흥미와 재미로 감상하는데 관람 내내 오락적 요소가 깔리지 않은 영화를 누가 좋아할까? 흥행성이 없는 영화는 외면당한다. 흥행 영화에 대해 정면으로 타르코프스키의 '희생'이라는 영화가 도전장을 내었다. 도정일 문학 평론가는 '희생'이란 영화가 한국 관객을 지루하게 할 수십 가지의 이유를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희생' 영화에 나타나는 등장 인물들은 누구나 보아도 눈을 즐겁게 할 용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영화의 주 스토리는 한 소년이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이다. 죽은 나무는 인간의 탐욕이 죽인 자연, 파산한 인간의 집, 고갈된 정신성의 상징이다. 이런 나무에 물을 주는 노력이 일종의 '희생'인 것이다. 인류가 잘못한 것을 복구 하자니 이렇게 힘겨운 희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런 비인기 무재미 영화 '희생'에서 놀라운 교훈을 발견했다. 흥행성을 거부하는 예술적 작업이 "현대예술의 사회적 소임"이라고 타르코프스키는 생각한 것 같이 복음 선포자의 현대적 소임도 흥행성과 세상성에 찌든 교회를 향해 도전하는 것이라고 본다.

오늘날 교회는 흥행성에 빠져 있다. 흥행성에 빠진 교회에게 무흥행성, 비인기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마치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지루하고 따분한 일 같지만 그래도 물을 주어야 한다.

율법과 시장성으로 질식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복음과 경건성을 이야기할 때 이미 기존 교회는 답답함을 느낄 것이 뻔하다. 저들은 복음이야기를 하면 외면한다. "희생"이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선포 행위 그것이다. 죽은 나무에 물을 준다는 것은 여간한 희생정신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는 바보 천치의 행위인 것이다. 그게 참된 "희생"이라는 것인데 성경은 율법에 대치되는 복음선포 곧 십자가의 도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복음선포자는 남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복음선포자는 사람들의 흥행을 맞추는 자가 결코 아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1:10)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이 웅 전도사

역사학자 마이클 리코나 교수는 그의 전문분야인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논증하고 있다. 2004년에 집필한 「예수는 부활했다」에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밝히 드러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책의 일부 내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을 살펴보면, 성경의 사복음서(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는 고대 전기의 장르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사복음서를 역사의 기록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역사 연구는 적절한 사료, 믿음직한 방법, 절제된 결론을 말하는 3R을 사용한다.

역사적 기록으로 학계로부터 인정받는 신약성경, 요세푸스, 타키투스, 소플리니우스 등 예수님을 언급한 사료들, 기독교의 초기 옹호자들이었던 변증가들, 사도들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사도 교부들의 검토 등의 적절한 사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 믿음직한 방법에는 초기의 기록, 목격자의 기록, 적의 기록, 당혹스러운 기록 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절제된 결론은 "역사가는 증거가 보장하는 것 이상의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인터넷이나 무분별하게 출판된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라고 말하는 책들에는 적절한 사료도, 믿음직한 방법도 그리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남발되는 주장이 너무나도 많다.

부활에 대한 기록

제자들에 대한 바울의 증언, 초대교회에 전해진 구두 전승,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록된 문서를 보면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당시에는 녹음기가 없었기에 구두전승이 신앙고백, 찬송, 설교요약문 형태로 신약성경에 들어갔음을 학자들은 발견하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왜냐하면 구두전승을 통해 전해진 기록이 신약성경보다 먼저 기록된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시중에 떠도는 책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개념은 기독교가 타종교에서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 시기가 중요하다. 베낀 것이 원작보다 저작시기가 빠를 수는 없다. 바울은 회심하고 3년 후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신앙고백을 전달받았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부터 5년도 않는 시점이다. 시간적으로

너무 이르기 때문에 바울의 부활에 대한 전승이 원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신앙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을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사복음서가 1세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회의론적인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포인트이다. 성경이 고대의 역사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신뢰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알렉산더대왕의 기록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알렉산더대왕에 대한 가장 오래된 두 자료는 그가 죽은 후 400년이 지나서야 기록되었다. 그리고 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로 인정받고 있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그에 대한 역사는 그의 장례식에 세워진 아주 짧은 비문하나, 그가 죽은 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자료 하나, 그가 죽은 후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기록된 자료 셋이 그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전부이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전혀 다르다. 예수님은 처형 후 35년 내지 65년 이내에 기록된 예수전기인 사복음서가 4편이나 존재한다. 이것은 현존하는 위인에 관한 전기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이다.

사도 교부들의 저작도 살펴보자. 베드로의 제자였던 클레멘스는 이렇게 적었다(참고로, 아프리카의 교부 터툴리안은 베드로가 클레멘스에게 직접 안수를 줬다고 기록하였다.). '사도들의 설교가 귀에 쟁쟁하고 그들의 전승이 눈앞에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전승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클레멘스는 설교에서 이렇게 언급하였다. "1세기에 그가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명령과 온전한 확신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성령의 확신으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라고 설교했다.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에 대한 이레나이우스의 기록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이레나이우스는 폴리캅에 대해 이렇게 썼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이 한 말을 기억했고… 사도들로부터 배운 내용들을 언제나 가르쳤다."
요한이 폴리캅을 서머나교회의 감독으로 직접 임명했다는 것은 터툴리안의 기록에서 증언하고 있다. 그는 편지에 사도들과 바울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현 시대를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살리심을 받은 분을 사랑했다."

성전이전과 하나님의 섭리



필리핀 이진욱 이순이 선교사

성전을 이전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었던 건물에서 이백 미터 전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건물을 옮기는 해프닝이 생겼네요. 2016년 1월, 6주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선 작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팀이 들어와 일주일을 집을 비우고 다니느라 교회 일을 신경 쓰지 못했는데 그 사이 교인들은 자신들만의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 긴밀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천근만근 말을 듣지 않는 몸을 침대에 누이는데 낮에 걸려온 한 집사님의 전화가 마음에 걸려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모님 힘드시죠. 저희 교인 몇몇이 모여 사모님 집을 이사해 드리려고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십시일반 얼마씩 모아 좋은 집은 아니어도 물이 새지 않고, 벌레와 쥐는 안 나오는 집으로 이사하세요. 그 동안 고생하셨어요. 사모님"

일어나 앉아 들어온 문자를 확인하며 하염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이젠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나의 목회자 우리의 목회자가 된 거구나. 이 얘기를 전해들은 이 목사는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입니다. 몇 주 전 중직들과 모여 성전 이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자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덮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잠깐 그 일을 떠올리며 교회가 먼저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던 이목사는 기어코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 잘 압니다. 그런데 애기 엄마들, 교회 왔다가 밖에서 아이들 보느라 고생하다 눈치 보며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옆집 킥복싱장에서 울려대는 음악소리에 당황해 하는 새 가족들에게도 많이 미안합니다. 사택은 괜찮습니다. 7년 째 살고 있는데요. 좀 더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좀 더 넓은 성전으로 이전해서 유아실도 만들고 넓고 시원하게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강단에서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성전이전은 진행이 되었고 한 달여 만에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인 중 몇몇 분이 한국과 중국으로 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서 어느 분은 차를 헌물로 내놓고 떠나시고 어느 분은 이곳 생활을 정리하신 일부분을 헌금으로 드리셨습니다. 전 교인이 많든 적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헌금으로 드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저 또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권사님이 한국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가시게 되니 정말 감사하고, 당신 맘에 있는 부담감을 조금은 덜고 가실 수 있게 되셔서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많은 교회와 동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지켜봐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분께 맡기는 삶



이기쁨 성도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많지만 이번 결혼을 통해 주신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20살 때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훈련 받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서 이성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빠들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지만, 저는 그 나이 때 부모님과 함께 선교를 위해 남아공으로 떠났고, 언어와 선교를 병행하면서 선교지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에 보츠와나 부흥회를 위해 부모님과 여행을 떠났고 여행 중 자동차 사고로 현장에서 어머니를 보내고, 아버지는 두 차례의 수술을 받게 되고, 저 또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가족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 가족 각자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내를 한 순간에 잃어버린 아버지의 무너지는 모습,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아버지의 재혼과, 오빠와의 갈등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영적인 외로움과 육적인 외로움 또 사고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찾은 해결방식은 사람들의 위로를 찾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 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배우자를 주시기보다는 한국으로 나오게 하셨고, 다시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 지금의 제 짝을 만나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도피처가 아니고 제 안에 쓴 뿌리가 있으면 주님의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해 제가 가진 소망과 또 그 실망감에 아버지에게 가졌던 마음, 선교지에서 제 의를 위해 선교하는 저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등에 업고 제 자신을 드러내려 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만남과 결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어긋남과 우여곡절 끝에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 그 후 서로에 대한 감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을 때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서로의 마음이 확인되고 열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때와 타이밍을 만드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제가 결혼하려면 저희 가족이 한국을 다 나와야 하는데 부모님이 한국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이 생기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온 시기에 새 어머니의 손을 통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 준비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모든 과정들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흔쾌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환경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3월 5일 하나님은 결혼식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아빠를 파송하지도 않은 시골 순천교회에서 할머니 권사님과 그 교회 담임목사님들이 바쁜 토요일을 비워 용인까지 오셨습니다. 백향목 교회 구석구석 안수 집사님들의 섬김과 아동부 집사님들의 가족들이 오셔서 저희 결혼식을 섬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이제 막 1년 밖에 안 된 홀로 신앙생활 하는 자매인데 교회 전부를 사용하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신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당장은 교회에 나가서 섬길 수 없지만 백향목의 섬김을 통해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섬김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이며 나의 모 교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깊은 내면에 더욱 간절한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백향목교회의 아기소개



아가이름 : **이택함** (2015년 11월 9일)

아빠 : 이 웅 전도사

엄마 : 김희은 사모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랑하는 아들아 ♥
예정일 보다 3주 일찍 태어났지만,
너무도 건강히 쑥쑥 잘 크고
기특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아빠 엄마 다엘이 형은 우리 택함이를
많이 많이 사랑한단다.
택함아 갓 블레스 유 ♥



아가이름 : **김로희** (2016년 3월 3일)

아빠 : 김태우 성도

엄마 : 함서윤 성도

사랑하는 로희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커주렴.
너의 눈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며
너의 입술로는 생명을 전하며
찬양하기를 기도한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반찬나눔

매주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반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반찬을 만들거나 헌금으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외된 이웃 말벗 되어 드리기, 겨울철 난방을 위한 창문 에어캡 붙이기 등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역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화를 위한 지역전도

전도팀은 정기적으로 아파트단지, 학교주변 및 지역전도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널리 퍼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전도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도팀장(권유정집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함께 하는 예배
꿈터주간보호센터

매월 둘째, 넷째 주에는
꿈터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의 시간, 성경공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지 현지인교회 선물전달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에게
약 250개의 가방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에도, 심부름을 하러 갈 때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가방이라며
아이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환 영 합 니 다

2015년 4분기



박철헌 송선미 성도(주현, 시현)



홍태정 성도



김혜란 집사(안지영, 준영)

환 영 합 니 다

2016년 1분기



이상원 성도



백종석 성도



성용훈, 김선미 성도(시은, 채은, 시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133:1



수고하고 무거운

권유정집사



열린



Left Baggage



찾았다!



2016년 진급예배

2016.1.03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자란 우리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들이 지난 한 해를 졸업하고 한 칸씩 전진하는 진급예배를 연합예배로 드렸습니다.

한 학년씩 진급하고 졸업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큼 자랐음을 서로 칭찬하고 축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5 새가족환영회 목자의 밤 2015. 12. 13

2015년을 마무리하며 새가족 환영과 목자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가족들에게 환영 인사를 하시고,
2015년 한 해를 수고한 목자들에게도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과 맛있는 저녁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년맞이 기도회
2016.1.4~1.8

신년맞이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불꽃 타오르게 하소서!

오늘 밤에도 역사하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목자 산상기도회
2016.1.16

2016년 20개의 목장을 섬길 목자들과 산상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성막 체험도 하고 목자로서 목원들을 더욱 열심히 섬기기 위한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교육기관 후원을 위한 리본트리 후원자 모집 2016.2.1

교육기관 후원을 위한 리본트리 후원자모집이 3주 간의 모집기간을 통해 100% 달성되었습니다. (100계좌 월 105만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백향목교회 미래의 일꾼인 아이들에게
골고루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납입방법]
- 매주 헌금함에 직접 헌금
-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
  농협 355-3000-2755-13 백향목침례교회



제자훈련 졸업여행
강원도태백
2016.1.22

15년 하반기 제자훈련 졸업여행으로 강원도 태백산 눈꽃축제에 다녀왔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겨울 눈과 얼음조각, 백향목 식구들과 함께 한 여행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2016년 제자훈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2016.2.14

선교위원회는 정기적인
지역전도와 해외파송
선교사지원 등 백향목교회의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부 겨울성경학교
2016.2.27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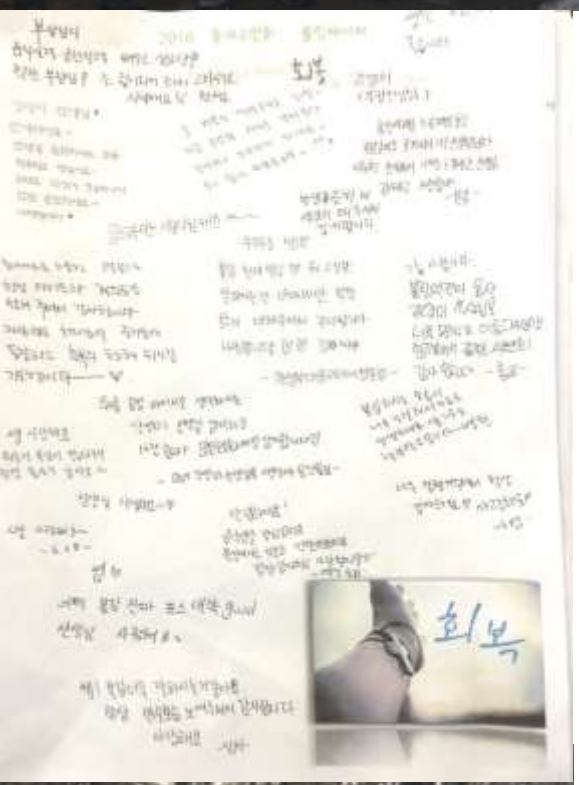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새학년,
새학기를 앞두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생부 동계수련회

2016.2.26-27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점점 죄에 둔감해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잃어버린 삶의 목표, 목적, 비전을 분명히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사랑하기에 수고할 수 있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10대다움과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수련회였습니다.







목자 헌신예배

2016.3.13

우리 백향목교회의 보배들!

20개 목장의 목자님들의
목자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 말씀부흥성회
2016.3.21~3.25

강사 : 박상완 담임목사

1.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2. 최고의 효도(인성과 신성)
3. 내가 목마르다
4. 테텔레스타이(다 이루었다)
5.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월 남성산행모임
화성 무봉산
2016.3.26



백향목교회의 남성들이 매달 한번씩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10여 명의 백향목 가족이 교회에서 가까운 화성 무봉산에 다녀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땀을 흘리며 맛있는 점심도 먹고
좋은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을 좋아하거나 가끔 운동을 하고 싶으신 성도님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활절 새벽예배
2016.3.27

새벽 6시,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부활절
온 가족 새벽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백향목 가족들이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였습니다.

예배 후에 목회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닭죽과 스프, 빵으로
아침식사도 나누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2016.3.27

2016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감동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성가대의 은혜로운 칸타타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연기한 성극으로
주님의 아픔과 부활의 은혜를 전달하는
눈물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수고가 아닌
모든 분들의 기도, 열정, 수고가 어우러져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고난주간, 부활절이 되도록 이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백향목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에 속한 복음주의적인 침례교회로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 인도의 선교사 윌리암 케리, 세계적 설교가 찰스 스펄전, 세계적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평화의 사도이자 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 등이 소속된 교단입니다.
백향목교회는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훈련하고 회복하며,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복 받는 기업을 만들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